

“전남 농촌서 유학 해볼까?” 도시 초교생들 눈빛이 반짝반짝

강진 읍천초교 ‘전남농산어촌유학 사전캠프’ 전국 초등생 12명 참여 2~3일 학교 머물며 집단 생활 체험... ‘놀거리 가득’ 학생·학부모 호평을 1학기 전남 48개 학교 301명 지원... 폐교 위기·지방 소멸 대안으로

“와, 말이다! 선생님, 쓰다듬어 봐도 돼요?”
지난 26일 강진군 읍천면 읍천초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임에도 어린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 울산 등 전국 각지의 도시에서 온 어린이 12명이 지난 25일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전남농산어촌유학 사전 캠프’를 즐기러 찾아온 것이다. 도시에서 받았던 성적, 교우관계 등 각종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골 생활을 경험하려는 어린이들이다.
이날 오전 강진청자 만들기 체험을 한 어린이들은 읍천초 운동장에 등장한 하얀 갈기의 말 두 마리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말에 올라타 운동장을 거닐면서 아이들은 “무섭다”, “떨린다”면서도 시종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식막한 도심에서 벗어나 넓적하고 평온한 시골 학교로 모인 어린이들에게 강진 읍천초는 놀거리로 가득한 ‘천국’ 같은 곳이었다.
정자에 앉아 군밤과 군고구마를 구워먹는가 하더니 어느새 자기 몸집만한 연을 날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해가 저자 강진을 ‘정자골 엄지마을’로 부모와 함께 캠프아이들을 즐기고, 읍천초 앞 ‘읍내골산촌유학센터’에서 용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기도 했다. 또 손두부·말고추장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바다캔들 만들기 등 도시에서는 겪어보

지 못한 체험 프로그램들에 어린이들은 푹 빠져버린 모양이었다.
이소담(10·서울 마곡동)양도 “서울에서 있을 땐 드림, 수영, 영어, 글쓰기 등 밤 9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 내려오니 그런 압박이 없어 좋다”며 “친구를 사귀기도 편하고, 재밌는 일이 많다. 엄마에게 제발 유학 오게 해달라고 졸라야겠다”고 웃었다.
전다인(9·충남 공주시)양은 “말에 올라타서 학교부터 주변 마을까지 한 눈에 봤다. 학교도 알록달록하고 유치원도 다르고 모든 게 신기하다”며 “도시에서 있을 땐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들어야 해 우울할 때가 많았는데, 강진에 오니 답답했던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따라 유학 사전 설명을 들으러 온 학부모들도 “처음 해 보는 시골 생활이 어떨지 걱정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전명진(11)군의어머니이자영(41·울산시)씨는 “학교에서 받은 공문을 통해 유학캠프를 알게 돼 참여했는데, 강진의 탁인 풍경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 아이에게 같이 강진에서 살아보라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시골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노는 것이 오히려 집단생활 경험을 쌓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함’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6일 강진군 읍천면 읍천초 운동장에서 ‘전남농산어촌유학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승마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강진에서 이뤄진 ‘사전 캠프’는 유학에 앞서 2~3일간 학교 생활을 체험해 보고 유학 생활 설명을 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전남 이외 지역 학생들이 전남의 각 시·군에 전입 및 전학을 와 6개월 이상 머무르며 특색있는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소멸에 더불어 인구절벽까지 심화해 전남의 학교들이 사라

질 위기에 처하자, 대안으로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왔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212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진 읍천초는 도교육청보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실제 읍천초는 지난 2013년 전교생이 15명에 불과해 폐교를 눈앞에 뒀으나, 유학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2024년 현재

까지 전교생 18명(유학생 5명)을 유지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전남 농산어촌유학 운영학교는 총 16개 시군 48교(초 38교, 중 10교)다.
참가자는 어린이만 따로 센터에서 숙식하는 센터형, 부모가 함께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가족 체류형, 기존 농가에서 머무는 농가홈스테이형 중 하나를 골라 유학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을 통해 가구·학생당 월 30만원의 유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는 1차 모집에 268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2차 모집에도 43명이 지원하는 등 총 301명이 지원했다.
유학 인원은 2021년 1학기 82명·2학기 165명, 2022년 1학기 304명·2학기 304명, 2023년 1학기 256명·2학기 279명 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에서 찾아오는 유학생이 많다. 올해 1학기 1차 지원자 268명 중 46.6%인 125명이 서울 출신이다. 경기, 부산, 경북, 충남,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학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9일까지 올해 1학기 2차 모집을 마치고 오는 31일 유학생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오는 2월 23일까지 주 소 이전 및 전학 처리를 마치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유학 활동을 시작한다.
김대성 강진 읍천초 교장은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폐교 위기였던 시골 학교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어린이, 학부모들이 머물게 되면서 지방 소멸을 막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글로벌대학30 지정’ 힘 모은다

외부 인사 등 자문단 구성 정책 간담회... 지역과 소통 행보

조선대학교가 글로벌대학 30 사업 지정을 위해 지역과 소통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김춘성 총장은 글로벌 30 추진본부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지정 준비에 나섰다.
조선대는 광주시 민선 8기 9대 대표 산업과 조선대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계해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이끔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30 추진본부는 조선대만의 강점을 담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학과와 단과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꾸려 추진 전략을 논의 중이다.
외부 주요인사와 유관기관장, 지역 산업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글로벌 자문단의 자문 및 정책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회의에서는 대학혁신과 글로벌 시스템 구축, 대학 내 벽 허물기, 지자체와 연계되는 도시캠퍼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춘성 총장은 “지역거점 민립대학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캠퍼스’ 구축을 성공시키겠다”며 “지역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맞는 캠퍼스 확장을 통해 지역과 동반성장 전략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유영기 기자 penfoot@

광주 북구, 청년센터 개방 취·창업 지원

공간 등 6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가 ‘북구청년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도전을 지원한다.
〈사진〉 북구는 지난 2020년 5월 문을 연 북구청년센터를 6개 분야로 활용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를 이용한 6개분야는 공간, 성장, 소통, 상담, 취·창업, 정책 참여 등이다.
‘공간’ 분야에서는 공유 주방·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와 세미나실·미디어 살·북카페 등이 있는 청년센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는 5월에는 북구행복어울림센터(용봉동)에 청년 전용 교육 공간인 어울림 홀이 새로 조성된다.
‘성장’ 분야에서는 4월부터 카페 예비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8월에는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웹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3월부터는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바퀴 달린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이



야기를 듣고, 9월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소통’ 분야의 청년주간도 열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기업체 채용시기에 맞춰 직무특강을 열고 구직 단련 청년취업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취·창업’ 분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 故 정선엽 병장에 명예졸업장 수여

12·12 쿠데타에 희생... 다음달 16일

조선대학교가 12·12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 병장을 지키다 희생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2022년 12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에게 오는 2월 16일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28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정 병장의 명예 졸업장 수여식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학교 측은 유족들과 논의를 거쳐 수여 날짜를 확정했다. 반란군을 막기 위해 최후까지 저항한 정 병장이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수 1300만을 넘는 흥행으로 재조명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 병장은 1956년생으로 동신고를 졸업하고 1977년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제대를 석달 남겨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신군부 주요 인물인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지휘하는 공수부대 병력이 병기를 점령하려 오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총에 맞아 희생됐다.
한편 정 병장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2022년 ‘순직’에서 ‘전사자’로 결정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